

## 세계 속의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악화와 아르헨티나 사태 등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9·11 테러전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수출부진과 소비위축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정보통신 산업이 큰 발전을 해야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 게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WTO 가입과 CDMA 서비스 개시, 영국과 정보통신 협력 약정 등을 활용하여 수출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며 우리 협회에서도 산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유망 정보통신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과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업계의 수익성,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정보통신의 이용 문화정착을 위하여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이트 인증제도」도 꾸준히 운영하는 한편 내실있고 정확한 산업 통계자료 및 부문 비교통계 등을 국내 각급 기관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정책 및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가전·음성정보·ASP·IDC 산업의 저변확대와 리눅스의 보급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넷 정보 검색사 시험을 비롯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하여 정보통신 인력 양성의 기반을 다지는 일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협회 사업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 장 호